

지금 인스타그램으로 Now, By Instagram

정사록
Jung Sarok

2010년 10월 6일, 서비스를 시작한 인스타그램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 2010년대 초부터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며 자연스럽게 이를 이용해 접속이 편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트위터 최근에는 틱톡과 같은 SNS 이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그래픽디자이너는 특히 다른 SNS보다 이미지를 위주로 소통하는 인스타그램으로 자신의 작업을 보여주고, 다른 디자이너의 작업을 보고 있다. 이미지를 알리는 데 유용한 도구인 인스타그램을 그래픽디자이너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키워드와 예시로 설명한다.

키워드

계정, 팔로우, 저장, 보관, 사진, 동영상, 글, 태그, 리그램, 해시태그, 스토리, 페이스 필터, 라이브, 디엠, 보내기

1. 계정

인스타그램으로 작업을 보이는 그래픽디자이너의 계정운영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공적인 용도로 계정을 만들어 디자인 작업물만 업로드하는 경우와 작업물 외에 음식이나 음악처럼 디자이너의 취향이 드러나는 포스팅도 함께 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 한정된 비율의 이미지만 업로드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의 특성상 이미지의 바탕에 검정색을 깔고 디자인 한 작업물을 보여주는 경우가 흔하다. [그림 1]

2. 팔로우

내가 팔로우 한 디자이너가 팔로우 한 디자이너를 팔로우 한다. 다른 디자이너의 팔로우 리스트를 보면서 잘 알지 못했던 국내의 디자이너, 이벤트, 단체, 공간 등을 알게되는 경우가 많다. [그림 2]

3. 해시태그

이미지를 업로드할 때 홍보목적으로 글이나 댓글에 자신의 이름이나 스튜디오명을 해시태그로 단다. 해시태그의 유용성은 검색을 할 때 드러난다.

233

디자이너의 이름 외에 특정 이벤트, 이미지 표현이나 효과를 검색하여 관심사와 관련한 이미지를 한 데 모아 볼 수 있다.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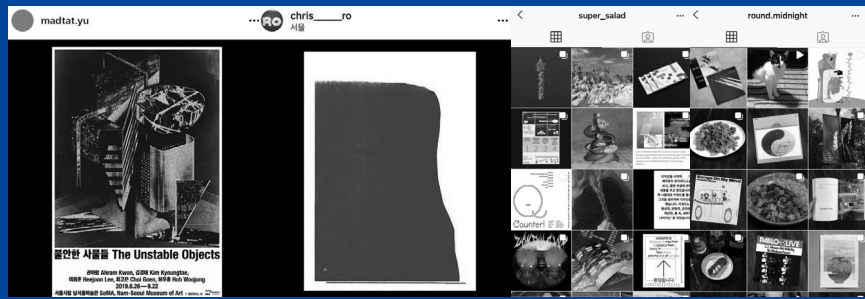
4. 페이스 필터

2019년부터는 인스타그램의 모기업인 페이스북에서 SPARK AR 이라는 AR 디지털 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유저들이 스스로 페이스필터를 만들기 시작했다. 다른 프로그램이나 도구를 이용해 만든 이미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던 인스타그램은 이 기능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는 매체가 되었다.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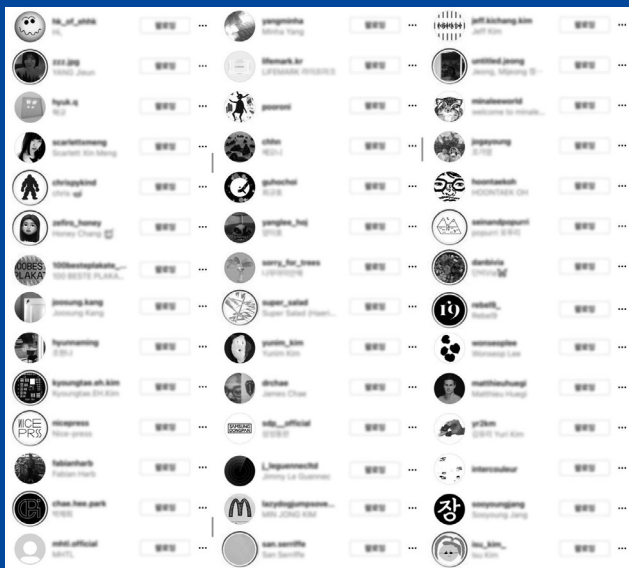
5. 라이브

2020 팬데믹 선언 이후 인스타그램의 라이브 방송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다.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로의 시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라이브 방송으로 그래픽디자이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전하고 있다. 방문할 수 없는 전시장의 모습을 중계하기도 하고,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또 다른 나라에 있는 디자이너와 함께 방송하며 서로의 작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는 동안 라이브에 접속한 사람들은 호응을 보내고 질문을 하며 소통한다. [그림 5, 6]



[그림 1]



[그림 2]



235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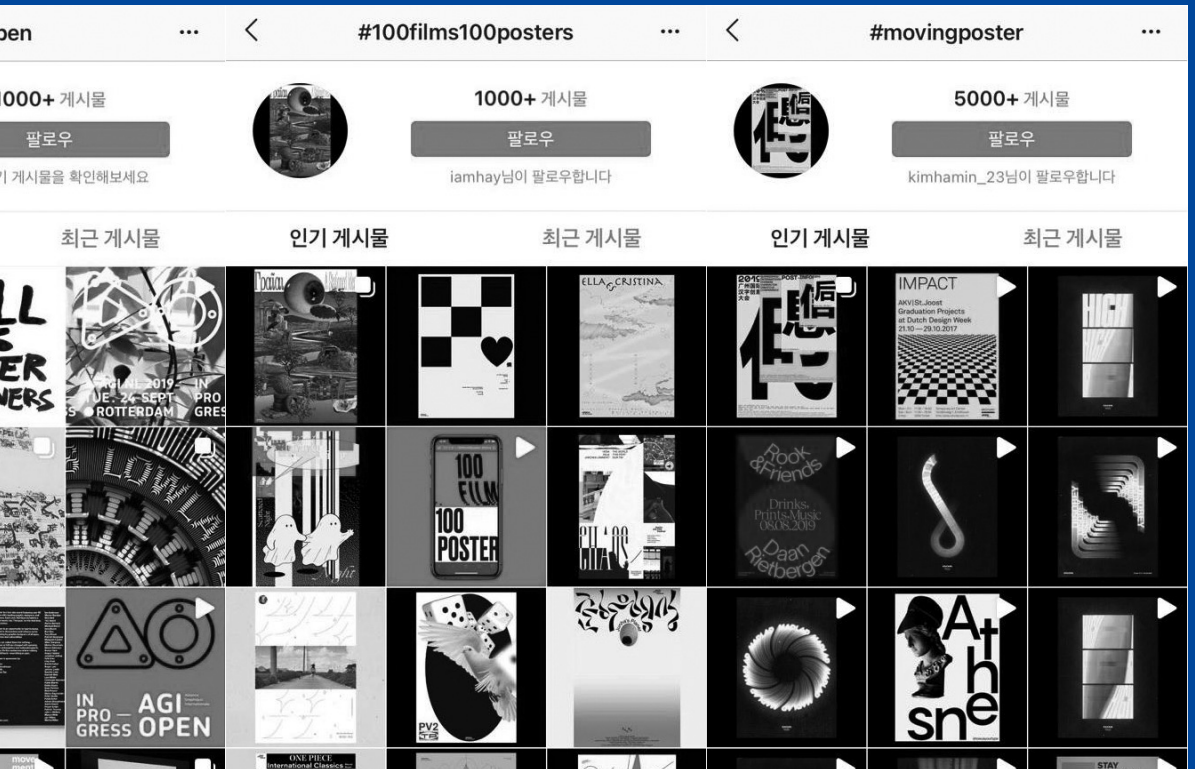
그래픽디자이너 유명상@madtat.yu,
크리스 로@chris____ro 인스타그램
계정/그래픽디자이너
이재민@round.midnight,
정해리@super_salad 인스타그램 계정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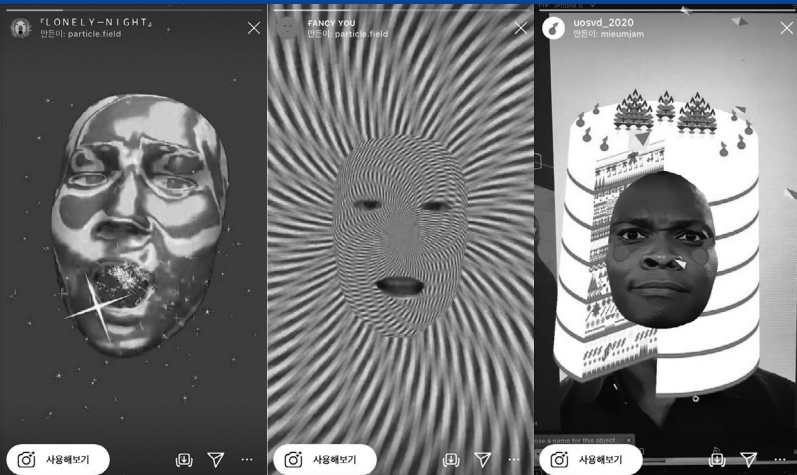
그래픽디자이너 정사록 @sa.rok.sarok의
팔로우 리스트 중 일부, 인스타그램을 자주
하는 사람은 계정의 이미지로 누구의
계정인지 파악이 가능하다.)

[그림 3]

해시태그 #100films100posters,
#agiopen, #movingposter 검색 결과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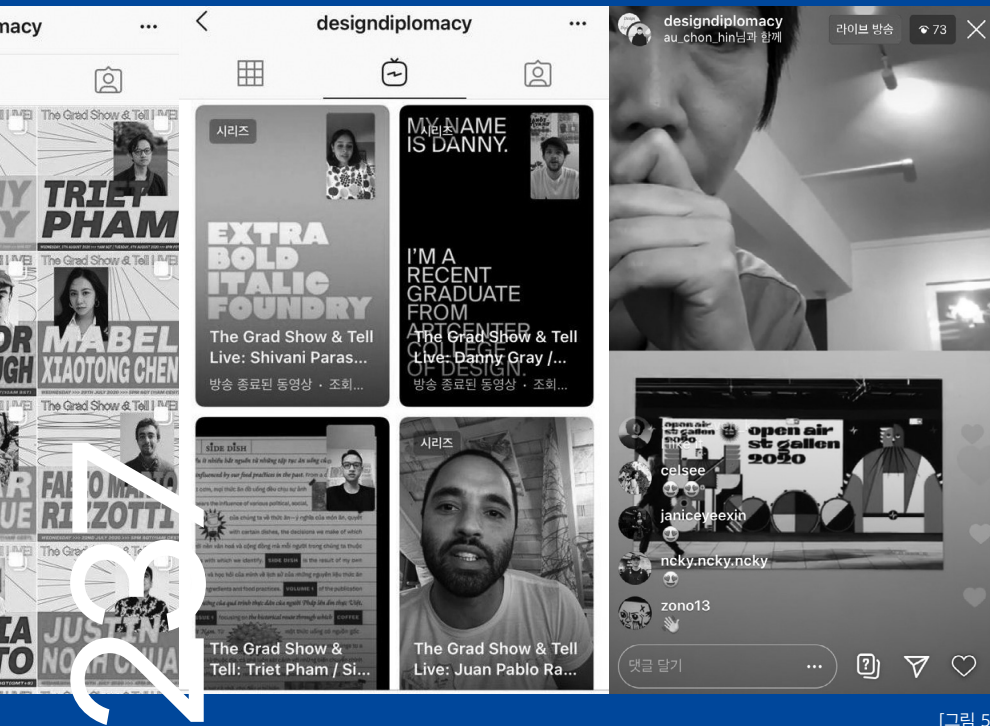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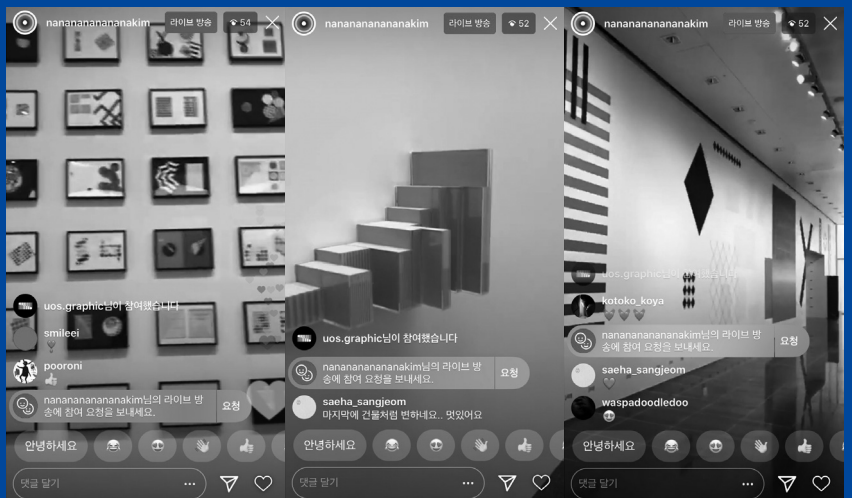
[그림 4]
파티클필드가 제작한 페이스 필터 <Lonely night>과 <Fancy you>, 2020
서울시립대학교 시각디자인전공 온라인
졸업전시 아이덴티티 작업의 일환으로
제작한 <케이크 페이스필터>

[그림 5, 6]
싱가포르의 foreignpolicydesign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designdiplomacy> 프로젝트/
서울시립대학교 디자인전문대학원
시각디자인전공에서 주최한 김영나
그래픽디자이너의 전시 <물체주머니>
라이브





[그림 5]



[그림 6]